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4437

2007年 8月
教育學碩士(日語教育)學位論文

日本語 授受動詞에 關한 研究

-やる・くれる・もらう의 用法을 中心으로-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朴 英

日本語 授受動詞에 關한 研究

-やる・くれる・もらう의 用法을 中心으로-

Investigation concerning the Japanese verbs "Giving" and"Receiving"

- To focus on usage concerning"yaru","kureru", and "morau"-

2007 年 8 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朴 英

日本語 授受動詞에 關한 研究

指導教授　　朴　青　國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日語教育)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7 年　4 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朴　　英

朴 英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校　敎授　金　仁　炫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授　朴　靑　國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授　丁　意　祥　印

2007 年　6 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目　次

Abstract ····· ii
第 1 章　序　論 ····· 1

第 2 章　授受動詞의 意味 分析 ····· 4
2-1. 先行研究 ····· 4
2-2. 受給動詞로서의 授受動詞 ····· 12
2-2-1. 「やる」「あげる」「さしあげる」 ····· 12
2-2-2. 「くれる」「くださる」 ····· 14
2-2-3. 「もらう」「いただく」 ····· 19
2-3. 受益動詞로서의 授受動詞 ····· 21
2-3-1. 「てやる」「てあげる」「てさしあげる」 ····· 21
2-3-2. 「てくれる」「てくださる」 ····· 23
2-3-3. 「てもらう」「ていただく」 ····· 25

第 3 章　「やる · くれる · もらう」의 用法 分析 ····· 28
3-1. 「1リットルの涙」에 나타난 授受動詞 表現 ····· 28
3-2. 「やまとなでしこ」에 나타난 授受動詞 表現 ····· 36
3-3. 「ロングバケーション」에 나타난 授受動詞 表現 ····· 37
3-4. 「東京ラブストーリー」에 나타난 授受動詞 表現 ····· 40
3-5. 「のだめカンタービレ」에 나타난 授受動詞 表現 ····· 43

第 4 章　結　論 ····· 48
参考文献 ····· 51

Abstract

Investigation concerning the Japanese verbs "Giving" and "Receiving" -To focus on usage concerning"yaru","kureru", and"morau"-

Park Young
Advisor : Prof. Park Chung-guk Ph.D.
Major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re are a lot of similaritie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in their grammar and system, so it is familiar to the learners who study Japanese. But sometimes they have difficulties on learning the verbs which are expressions of giving and receiving.

Lots of investigation has been made for its misuse, that means we could find out the lack of drill through the repeated training and the way of learning.

This paper considered a matter in expressions of commonly used verbs which are giving and receiving through the Japanese dramas and that anybody could have difficulties on them. This study examines the usage of expressions of giving and receiving with [yaru, kureru, morau, teyaru, tekureru, and temorau]

Japanese verbs of giving and receiving as a main verb express giving and receiving but their usage is decided depending on [giver], [receiver] and

[object]. that means its meaning changes according to taking a view of a situation in someone's position, bringing someone into focus, regarding someone as the object, that is to say, the verbs which are giving and receiving limit grammatical person and are concerned in speaker's focus.

Japanese verbs which are giving and receiving as a auxiliary verb express action of giving and receiving, namely usage to appear advantages and benefit in receiving, advantage expressions and the others.

Generally, [teyaru] is someone's giving something to someone else and those verbs will be a positive side or a negative side, but sometimes they are regarded as his or her own strong will.

In Japanese dramas [tekureru] shows that the object indicates speaker's expression and it is commonly used when someone wants to ask something.

[temorau] shows when someone wants to ask something politely and someone wants to get something from someone who is the same position with oneself and lower. It has some restriction which the speaker is always located in subject position and the first person in grammatical person cannot be located in object position.

第1章　序　論

日本語와 韓国語는 통사론적으로 같은 特性을 지니는 등 비슷한 文法 구조를 갖기 때문에 韓国人 日本語 学習者들에게 쉬운 外国語로 인식되기 쉬우나 日本語의 授受動詞 표현 習得과정에서 韓国語와의 異質的인 特性을 発見하고 習得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日本語에서는 「누가누구에게」라는 表現의 方向性에 따라서 쓰이는 授受動詞가 달라진다는 점과 主語의 人称이 바뀌면 그것에 따라 授受動詞가 달라지며, 話者의 視点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授受動詞가 달리 사용된다.

또한 日本語의 授受表現은 話者가 中心이 되어 行為主体와 行為対象者 사이에 位相 차이에서 오는 待遇関係와 話者의 입장에서 가까운 쪽과 먼 쪽을 구분하는 内外 관계로 表現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授受動詞는 누가 主語가 되는 지 누구의 視点에서 제반 사태를 서술하는지에 따라 그 用法이 달라진다.

단순히 사물의 移動을 나타내는 동사를 受給動詞라고 하며, 「やる、あげる、さしあげる、くれる、くださる、もらう、いただく」로 나타낸다.

또한,「て」나「で」를 수반함으로서 行為의 移動을 나타내는 동사를 受益動詞라고　하며、「てやる、てあげる、てさしあげる、てくれる、てくださる、てもらう、ていただく」로 나타낸다.

이는 受給動詞와 마찬가지로 주고받는 人称과 視点에 制約을 받고 행위의 이동으로 인해 恩恵나 利益을 수반하는 授受表現이다.

受益動詞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利益이나 恩恵의 의미를 수반하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してやる」「してくれる」는 利益이나 恩恵를 부여하는 쪽이 主語가 되며, 「してもらう」는 利益이나 恩恵를 부여받는 쪽이 主語가 된다.

또한 利益이나 恩恵의 방향에 의해서 「してやる」는 「いく」의 방향이고,「し

てくれる」와「してもらう」는 「くる」의 방향이다.

第 2章에서 先行研究를 살펴본 뒤, 선행연구를 토대로 授受動詞의 쓰임을 재정리해 본다. 아울러, 授受動詞 「あげる」「くれる」「もらう」의 用法을 중심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日本 드라마를 통한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授受表現을 考察해 보고자한다.

日本語 授受動詞는 行動主体가 누구냐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달라진다. 또이 수수표현은「やる、あげる、さしあげる, くれる、くださる, もらう、いただく 」와 같은 受給表現과 「てやる、てあげる、てさしあげる、 てくれる、てくださる、てもらう、ていただく 」와 같은 受益表現으로 나눈다.

가장 일반적인 표현으로「あげる」「くれる」는 受与動詞이고, 「もらう」는 受取動詞이다. 1)

이들 동사의 특징은 授受의 主体와 상대방 間에 人称의 制約이 있다.

즉, 1인칭(私), 2인칭(あなた), 3인칭(それ以外) 라고 하는 인칭상의 관계에 의하면, 「あげる」는 行為主体 側이 상대방 보다 人称의 序列이 높고, 「くれる」는 行為主体가 話者 側 보다 人称의 序列이 낮다. 또한「もらう」는「あげる」와 마찬가지로 받는 사람이 主体가 되고 주는 사람인 상대방 보다 人称의 序列이 높다.

즉, 人称에 있어서 話者가 누구에게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수수동사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다.

話者의 視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森田良行의「日本語の視点」에 나타난 授受表現을 통해 알아본다.

かつで筆者が、外国人の日本語教師たちを相手に日本語学を講じていた折、その場に居合わせた某氏が、「どうして日本人が、相手に直接話しかけかけるとき「日本語を教える」と言わないで、「日本語教えてあげる」と丁寧に言うのですか」と質問してきたことがある。なるほど「私は　教える　日本語を」という言語構造の発想からすれば、なぜことさら、「あげる」という言葉添え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

1) 益岡 隆志, 田窪 行則(1992) 『基礎日本語文法』くろしお出版

理解に苦しむところである。同氏は「あげる」を使うことは表現を丁寧にするためと考えているようであるが、この考えは正しくない。丁寧にするだけなら、文末に「教えます」と「ます」を付ければすむことであるから。2)

이와 같이 日本語의 授受表現에서는 話者나 話者 측의 시각에서 発話하는 경우와, 제3자 측의 입장에서 発話하는 경우에 표현의 양태가 달라진다.
上記, 森田의 인용내용의 경우 授受表現을 상황에 맞게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서 내가 타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지 혹은 내가 일본어를 배우는 것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는 日本語 授受動詞의 기본 特性을 説明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의 日本語 授受動詞의 先行研究는 授受動詞의 誤 .用例 분석과 視点을 중심으로 한 용법 분석 등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어 왔다고 판단된다.
본 研究에서는 지금까지 先行研究에서 간과되었다고 생각되는 授受動詞의 기본적인 用法 및 活用方案을 좀 더 구체적으로 考察하여 韓国人 日本語 基礎学習者들도 日本語 授受表現에 보다 쉽게 接近 할 수 있도록 日本語 授受表現의 用法을 심도 있게 分析 해 보고자 한다. 그 方案의 하나로 본 고 에서는 일본 드라마 몇 편을 선정하여 드라마에서 사용되고 있는 授受動詞의 用法을 分析하여 上記 제시한 취지를 具体化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日本語 文法 教育의 現場化에 응용할 수 있는 한 대안을 이룰 수 있으리라 思料된다.

2) 森田良行(1995)『日本語의 視点 』創拓社 p.170

第 2 章. 授受動詞의 意味 分析

2-1. 先行研究

授受動詞는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본 고에서는 대표적으로 松下大三郎(1924), 宮地裕(1965), 豊田豊子(1974), 森田良行(1977), 久野 暲 (1978)의 先行研究를 中心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受益動詞「～てやる · ～てくれる · ～てもらう」는 受給動詞의「やる · くれる · もらう」가 나타내는 단순히 물건의 주고받는 의미와는 달리, 누가 누구에게 恩恵 또는 利益을 주느냐 라고 하는 行為의 移動을 나타내는 受益표현이라 할수 있다. 이 受益動詞에 대해서 松下大三郎[3]은『標準日本語文法』에서「動詞の相」의 하나로서 언급하고 있다. 金田 一 春彦의 『世界言語概説』[日本語の補助動詞の項] 또한, 鈴木重幸『文法教育』 「形態論のやりもらい」の項 등에도 언급되고 있다.

松下大三郎(1924)[4]는 授受動詞를 「自行他利態」「他行自利態」「自行自利態」의 利益態 라고 칭하고「自行他利態」는 자신이 主体가 되어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利益을 주는 경우이고, 「他行自利態」는 타인이 主体가 되어 타인의 행동으로 자신에게 利益이 미치는 경우라고 했으며, 「自行自利態」는 행동을 취하는 쪽은 자신이 아니지만 받는 쪽이 主体로서 자신이 되기 때문에「自行自利態」라고 하였다.

松下는 利益의 관점에서 누구의 行為가 누구에게 利益을 주는가에 대해 授受動詞가 달리 사용된다고 언급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自行他利態」 (～てやる)

3) 宮地裕(1965) 「やる · くれる · もらう」を述語とする文の構造について」国語学63, 国語学会編

4) 松下大三郎,(1974) 『改編標準日本語文法,』 勉誠社 p.399

자신이 行動해서 타인에게 利益을 부여하는 경우.

１）私は太郎に本を買ってやった。

「他行自利態」 (～てくれる)

타인이 主体가 되어, 자신에게 耳翼을 부여하도록 行動하는 경우.

２）太郎が私に本を買ってくれた。

「自行自利態」 (～てもらう)

실제 行為를 하는 쪽은 자신이 아니지만,「もらう」의 主体가 자신인 경우.

３）私は太郎に本を買ってもらった。

金田一春彦『世界言語概説』「日本語の補助動詞の項」도「～てやる · ～てくれる · ～てもらう」의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5)]

「～てやる」

話者 또는 타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恩恵가 미치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意味한다.

「～てくれる」

타인으로부터 話者 쪽으로 恩恵가 미치는 것을 나타낸다.

「～てもらう」

문장의 主語에 나타나는 사람으로부터 恩恵를 받는 것을 나타낸다.

鈴木重幸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6)]

---

5) 金田一春彦(1955)『世界言語概説』[日本語の補助動詞の項] p.179

6) 鈴木重幸(1972) 『日本語文法 · 形態論』 むぎ書房

「～てやる」

主語에서 나타내지는 主体가 타인을 위해 행하는 것을 나타낸다.

「～てくれる」

主語에서 나타내지는 主体가 話者나 대화 중심인물을 위해 타인이 행하는 것을 나타낸다.

「～てもらう」

主語에서 나타내지는 主体를 위해 타인이 행하는 것을 나타낸다.

鈴木重幸의 설명을 살펴보면, 利益을 주는 사람과 利益을 받는 사람이 누구이며, 話者가 어느 편에 서서 서술하고 있는지에 따라 授受動詞의 形態가 달라지는 등 授受表現에 있어서의 主語와 対象語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宮地 裕 는松下가「～てもらう」를 「自行自利態」라고 정리 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てくれる」와 같은 맥락으로 타인이 主体가 되어 자신에게 利益을 주는「他行自利態」라고 보았다.7)

또한, 宮地 裕(1965)는 「やる・くれる」의 主語와 目的語의 위치는 다르지 않지만, 문장 안에서 焦点이 누구에게 맞춰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다시 말해서 話者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やる・くれる」가 달리 사용된다는 것을 説明하고 있다.
授受動詞는 人称에 제약을 받는 다는 점과 話者의 視点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授受動詞의 用法이 달라진다고 説明하고 있다.

宮地 裕은 受益動詞를 다음과 같은 표로서 정리하였다.8)

---

7) 宮地裕(1965) 「やる・くれる・もらう」を述語とする文の構造について」国語学63, 国語学会編 p.183

8) 宮地裕(1965)「やる・くれる・もらう」を述語とする文の構造について」国語学63, 国語学会編 p.246
宮地裕(1965), 「言葉の研究 」(第2集) 『敬語理解』,秀英出版

「書いてやる」

1) ***A*** → ***B***

S

◎ →

△

(S = 主語 ,△=「 書く」の主者(行為主体) , ◎ = 話者の立つ側)

「書いてくれる」

2) ***A*** → ***B***

S

→ ◎

△

(S= 主語 , △=「書く」の主者(行為主体) , ◎= 話者の立つ側)

「書いてもらう」

3) ***A*** → ***B***

S

→ ◎

△

(△= 「書く」の主者(行為主体) , ◎= 話者の立つ側 , S=主語)

豊田豊子(1974)[9]는 受益動詞를 利益과 恩恵의 意味的 用法과 不利益과 迷惑의 의미로 구분하고 不利益을 나타내는 원인은 본동사의 의미가 불이익을 나타내는 동사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困る、苦しめる、ぶつ」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森田[10]는 「書く」「言う」「する」과 같이 不利益의 의미를 지니지 않

9) 豊田豊子(1974) 『補助動詞「やる・くれる・もらう」について』国語学63, 国語学会編

10) 森田良行(1988) 『日本語を磨く小辞典<動詞編>』 講談社

는 동사는 行為의 移動에 의해 일어나는 不利益이나 利益에 상관없이, 話者 또는 話者 側의 意志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또한, 森田良行(1977)[11]는 의미적 관점에서 受給動詞로서 사물의 수수를 표현하는 동사를 「やる、くれる、もらう」로서 사물의 소유자로부터 타인에게 소유권의 보상 없이 이행하는 행위라고 보고, 受益動詞로서의 「てやる、てくれる、てもらう」는 의지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동사에 대해 行為主体가 행위를 받는 상대방을 위해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受益動詞에서 利益뿐만아니라 不利益에 관한 표현과 강한 意志를 나타내는 경우를 포함해서 언급하고 있다.

森田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やる · ～てやる 」(自行他利)

行為의 主体는 話者 또는 話者 側에 있으며 主語이다.

A●→B

(●는 話者의 視点)

話者 또는 타인 A로부터 타인, B에게 恩恵를 미치게 한다. 主語로 표현되어지는 主体A가 타인B를 위해서 行為를 하는 경우이다.

「くれる · ～てくれる」(他行自利)

行為主体가 主語이며, 「やる · ～てやる 」와 반대로 話者 또는 話者 側이 받는 입장이 된다.

A→B●

(●는 話者의 視点)

타인A로부터 話者B에게 恩恵가 미치게 된다. 主語로 표현되어지는 主体A가 話者나 이야기의 중심인물B를 위해서 行為를 하는 경우이다.

---

11) 森田良行(1977)『基礎日本語Ⅰ』 角用書店 p.456

「もらう・～てもらう」（自行自利）

行為主体가 他人이 되고, 話者 또는 話者 側의 立場이 主語가 된다.

A→B●

문장의 主格인 話者 또는 話者 側의B가, 타인A로부터 恩恵를 받는다.

主語인 主体B를 위해서, 타인A가 行為를 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久野 暲(1978)은 언어학 문법 분석에 있어서 不可欠한 시점에 관해 視点 개념을 도입한 인물로서 話者가 문장이나 談話文에서 어느 쪽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말하여, 話者의 입장이 어디에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話者의 視点을 분석한 것으로 授受動詞에서의 受給動詞와 受益動詞에 대해 분석하였다.

話者의 視点에 대해 久野 暲가 視点理論[12)]에 대해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話者의 視点의 문제는 문학작품의 연구에 관계가 있어, 언어학 ,특히 문법의 연구에 있어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視点의 개념이 일상사용 언어의 문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必要悪인 것이다.

久野 暲은 話者가 어느 쪽에서 발화하고 있는지 話者의 視点에 의미를 두었고, 감정이입의 共感度(Empathy)에서 考察하고 있다. 즉, 話者가 감정이입을 어디에 두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다음 도표는 話者의 視点에 따라 달리 쓰이는 授受動詞의 표현을 살펴보았다.

『↑』은 話者의 視点이 있는 부분을 나타낸다.

例）鈴木が太郎に本をやった。

　　鈴木が太郎に本をくれた。

12) 久野 暲(1978)『談話の文法』. 大修館書店

鈴木が太郎に本をやった。 ↑	太郎が鈴木に本をもらった。
鈴木が太郎に本をくれた。 ↑	鈴木が太郎に本をもらった。(×) 太郎が鈴木に本をもらった。(○)

두 예문은 내용 상 같지만, 話者 또는 話者 側의 사람이 視点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달리 쓰이고 있다.

「やる」가 쓰인 경우는 話者 또는 話者 側의 인물이 主語 (与える) 에 視点이 있다.

「くれる」가 쓰인 경우는 話者 또는 話者 側의 인물의 시점이 目的語 (受け取る) 에 있다.

이 들의 관계를 共感度와 연관시켜 視点의制約을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やる　E (主語)≥ E (与格目的語)

くれる E (与格目的語) > E (主語)

もらう　E (主語) >　E (非主語)

奥津敬一郎(1983)[13]은　日本語의 授受動詞는 二項目構造를 이루고 있는「売る · 買う」「貸す · 借りる」처럼, 授受動詞는 주는 쪽을 主語로 하는 「与え動詞」와 받는 쪽을 主語로 하는「受け動詞」의 二項目構造 이외에 「敬語 · 非敬語」와 「身内 · よそもの」에 의한 구조라고 서술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3) 奥津敬一郎(1983) 「授受表現の対照研究」日本語学4月号 明治書院

1)「与え動詞」와「受け動詞」

与え動詞-「やる · あげる · さしあげる · くれる · くださる」

受け動詞-「もらう · いただく」

2) 「敬語 · 非敬語」

敬語-「さしあげる · くださる · いただく」

非敬語-「やる · あげる · くれる · もらう」

3) 「身内 · よそもの」

身内- 話者 또는 話者 側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확인되어지는 사람.

よそもの-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구분되어 지는 타관 사람.

奥津敬一郎[14]의 정의를 분석해 보면 「身内 · よそもの」의 친소 관계에 입각하여 授受動詞가 사용되고, 話者의 視点에 따라 수여자를 主語로 할 때에는 「やる · あげる · さしあげる · くれる · くださる」라고 하는 「与え動詞」,受取人을 주어로 할 때에는 「受け動詞」를 사용함으로서 구분했다.

「くれる · くださる」은「もらう · いただく」가 받는 사람이 主語가 된다는 점이 다르고 그 외의 조건은 동일할 때 사용된다.

이상 살펴본 授受動詞는 行為主体와 수취인과의 제반관계에 따라 표현형태가 달라진다.

즉, 行為主体 「やる、あげる、さしあげる、くれる、くださる」의 대상자와 수급자 대우관계와 「もらう、いただく」의 対象者 사이에 사회적 신분이나, 계급 등을 고려한 話者 側에서 볼 때, 内外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표현 형태가 구분되어 지는 것이다.

先行研究에서도 알 수 있듯이 日本語의 授受動詞 「やる · くれる · もらう」의 표현에 있어서 말하는 사람의 視点이 표현 안에 깊이 내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話者와 표현 対象者 및 話題의 人物과의 관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14) 奥津敬一朗(1986) 「やりもらい動詞」国文学解釈の鑑賞51号 至文堂

부연하면, 話者 자신의 視点에서 行為와 状況을 서술하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以上, 先行研究를 토대로 본 章에서는 授受動詞의 개념을 재정리 한 뒤, 제3章에서는 日本 드라마를 통해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授受動詞 表現을 분석하기로 한다.

2-2. 受給動詞로서의 授受動詞

2-2-1. 「やる」「あげる」「さしあげる」

물건을 주고받는 受給 動詞로 「やる」는 물건을 건네주는 表現을 하는 것으로, 主語가 되는<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 보다 位相이 높은 경우에 사용된다.
또한,「あげる」보다 격이 낮은 表現으로 손아랫사람이나 話者와 同等한 위치에 있는 사람, 또는 話者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동식물에게 쓰는 表現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やる」 의 어감이 좋지 않아서 「あげる」를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私」가「娘」에게 주는 경우
1） a. 私が娘にこづかいをやる。　　b. 私が娘にこづかいをあげる。

「私」가「太郎에게 주는 경우
2） a. 私が太郎に新聞をやる。　　b. 私が太郎に新聞をあげる。
　　c. 私が先生に本をさしあげる。

「あげる · さしあげる」는 「やる」와 마찬가지로 話者 側에서 볼 때 안에서 밖으로 事物과 所有権 등이 移動하는 경우에 쓰는 表現이다.

待遇度로서 살펴보면 「あげる」는 「やる」보다는 격이 높은 表現이고「さしあげる」보다는 낮은 表現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やる」의 謙讓語로서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에게 부여하는 表現으로 話者나 話者 側의 사람이 行為를 할 때 使用한다.
위의 예문 2) 를 다음과 같이 수수관계의 방향이 반대인 표현으로 바꿔본다.

3) 'a.′ 太郎が私に新聞をやる。　　b.′ 太郎が私に新聞をあげる。
　　c .′ 先生が私に本をさしあげる。

위의 예문과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表現이며, 授受動詞가 보조動詞로서 사용되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4) a.　私が太郎にそのことを教えてやる。(○)
　a.′ 太郎が私にそのことを教えてやる。(*) (*は非文のしるし)

授受動詞의 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다.[15)]

5) a.　私が君から雑誌をもらう。　b.　私が先生から本をいただく。
6) a.　君が私に雑誌をくれる。　b.　先生が私に本をくださる。
7) a.　私が太郎に雑誌をやる。　b.　私が山田さんに本をあげる。

A는 話者나 話者 側의 인물을 나타내고 B는 그 상대방을 가리킨다.
「—」은 A가 主格을 의미하고 「…」은 B가 主格일 때를 가리킨다.
　B1—いただく——→A
　B1……くださる…→A
　B1←さしあげる—A
B1은 윗사람을 가리키고 B2는 중간적인 인물을 가리키며, B3는 동등하거나 아랫사람의 친한 인물을 가리킨다.

15)『日本語教師養成シリーズ 』文法, 語彙, 日本語史 凡人社 p.61

다만, 최근 「あげる」가 「やる」의 대신 사용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A————あげる——→B2

A————や　る——→

A←……くれる……B3

A←————もらう————

16)

「さしあげる」는 공손한 겸양어 표현으로 받는 사람이 손윗사람일 때 쓰는 待遇度가 「やる」와 「あげる」보다 높은 表現이다.
즉, 받는 쪽을 높이고 주는 쪽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표현이다. 물건을 주고받는 쪽이 손윗사람이라든가 그다지 친분이 없는 경우 등에 쓰는 表現이다.
「さしあげる」가 사용되는 경우는 화자의 위치가 항상 주어에 있으며, 목적어 자리에 1인칭이 올수 없다는 점은 「やる」와 「あげる」가 쓰이는 경우와 동일하지만, 動 ,植物에는 사용 될 수 없고, 待遇関係에 있어서 主語의 입장이 상대보다 항상 下位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대화가 오고갈 때 「さしあげる」를 使用하면 상대방에게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대화가 오고갈 때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2-2-2. 「くれる」「くださる」

「くれる」는 타인이 話者 또는 話者 側의 사람에게 물건을 줄때 使用하는 수급표현으로, 타인을 主語로 한다. 다시 말하면「あげる」와 쓰임이 다르다.
「あげる」표현을 쓸 때는 話者 또는 話者 側의 사람이 타인에게 물건을 줄때

16) (注)주고받음의 상대의 양 방향이 화자 측의 인물이 아닌 경우에 임시로 적당히 어느 쪽을 지정해 A라 하고 그 상대를 B라고 위치한다.

使用하지만, 「くれる」표현은 타인으로부터 나에게 라는 人称序列의 制約을 받는다. 人称序列에 관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하고 「くれる」표현으로 다시 돌아가서 받는 사람이 話者 또는 話者 側에 가까운 사람일 경우에 「くれる」라는 동사를 사용한다.

「くださる」는「くれる」의 존경어로서 문장에서 주는 사람이 손윗사람일 경우에 쓰이고, 동등한 위치에 있더라도 친분이 없을 경우에도 쓰이며, 주는 사람이 주어가 되는 「くれる」와 쓰임은 같다. (注) 17)「→」은 이동 방향을 가리키며, 숫자 1,2,3은 각각의 人称을 의미한다.

８）君が私に本をくれた。（２→１）

９）太郎が私に本をくれた。（３→１）

１０）太郎が君が本をくれた。（３→２）

１１）先生が私に本をくださった。（３→１）

「やる」「くれる」를 다시 정리해 보면, 물건이 누가 누구에게 이동하느냐 라고 하는 方向性에 따라 授受動詞가 달리 쓰이고, 人称과 視点에 따라 動詞의 쓰임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韓国語는 나라고 하는 1인칭이 타인이라는 2, 3인칭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와 2, 3인칭이 1인칭이라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동사의 '주다'라는 표현을 視点과 人称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日本語의 경우는 視点과 人称에 대해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日本語 예문에서 나타나는 視点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18)

１２）a。僕は花子に電話をかけた。

b。＊花子は僕に電話をかけた。

---

17) 「→」은 이동 방향을 가리키며, 숫자 1,2,3은 각각의 人称을 의미한다.

18) 庵 功雄(2001) 『新しい日本語学入門』 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p.117

c。花子は僕に電話をかけてきた。

１３）a。僕は花子に本を送った。

b。＊花子は僕に本を送った。

c。僕は花子に本を送ってきた。

예문１２)의 a 와１３）a는 文法的으로 맞는 표현인 것에 반면, 예문(１２)b와(１３)b는 비문법적인 것이다. 또한 예문 (１２)의c와 (１３)의c의 문장처럼 화자인「話し手」에 시점이 맞춰져서「てくれる」를 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이들의 동사가 「やる」「もらう」와 같이 主語 쪽의 視点이라고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제약을 가지는 이유이다.
「やる」의 경우에는「나」라고 하는 話者(1인칭)이 타인(2,3인칭)에게 건네줄 때 사용되며,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1인칭이 2인칭에게, 2인칭이 3인칭에게, 3인칭이 3인칭에게 무엇인가를 건네줄 때, 사용된다는 것을 예문을 통해 알 수 있으며, 「やる」는 주는 쪽이 받는 쪽 보다 人称 序列이 높거나 같을 때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くれる」는 동작의 방향이 주는 쪽에서 받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만약「先生が私に本をくださった。」라고 하는 문장처럼 자신보다 上位者의 행동이라면「くださる」가 사용된다.
다음 표는 주는 쪽이 말하는 사람 이외의 자로서 동일하거나 下位者의 경우일 때 사용되며, 받는 쪽은 화자 쪽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与えて	受けて
同じレベル　：話し手以外 下位者　　：話し手以外	話し手内

이처럼, 「~의 입장에서 사태를 본다.」「~에 視点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을 主語로 한다.」또는「~을 目的語로 한다.」 라고 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즉,「누구에게 視点이 맞춰져 있다.」 라고 하는 것과 「누구를 主語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日本語의 授受動詞에 미치는 話者의 視点과 人称의 制約에 따라 동사의 쓰임이 다른 日本語 授受表現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경어 쓰임에 관한 표현은 제외하기로 한다.

１４）. 太郎が花子に本をあげた。

１５）. 太郎が花子に本をくれた。[19]

예문１４）, １５）로부터 「やる · あげる」도「くれる」도 주는 사람을 主語로, 받는 사람을 目的語로 한 것을 알 수 있다.이 부분에서 양쪽에 구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문１４）와１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화자의 視点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수수동사가 달리 사용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예문１４）에서는 화자의 시점이 太郎에게 맞춰져서 안쪽이라고 하는 話者側의 입장에서 타인에게 쓰는 표현으로「あげる」를 쓰고 있다. 예문１５）에서는 話者의 표현 위치가 花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고, 人称序列이 낮은 타인으로부터 안쪽인 화자 측 花子에게 「くれる」가 쓰이고 있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차이를 분석해 본다.

１６） a, 私が花子に本をあげた。

b. *花子が私にほんをあげた。

１７） a. *私が花子に本をくれた。

b. 花子が私に本をくれた。

「あげる」와 「くれる」는 人称序列 上 쓰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人称 序列은 話者(1人称) > 2人称> 3人称 이고, 말하는 사람에게 焦点을 맞추어 人称의 序列을 表現 한다.

「あげる」는 일반적으로 1인칭인 화자가 타인인 2, 3인칭에게 쓰는 表現이고, 話者가 2, 3인칭일 경우에 주는 사람이 主語로서 , 받는 사람은 目的語가 되

19) 庵 功雄(2001) 『 新しい日本語学入門』 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p.118～p.119

어 결국 주는 사람 쪽이 받는 사람 쪽보다 人称 序列이 높은 話者 또는 話者 側에 가까울 때 쓴다.

다음 예를 살펴본다.

１８）　お父さんが犬に餌をやる。

１９）, 太郎が花子に本をあげる。

예문１８）,１９）에서 「やる」는 동물이나, 식물에게 쓸 수 있으며, 친한 사이거나 손아랫사람에게 쓸 수 있는 表現이다.

또한, 예문１８）에서는 話者가お父さん과 더 가깝다는 視点에서 「やる」를 썼으며 ,예문１９）에서도 話者가 太郎의 側에 가까운 사람으로서 「あげる」를 使用했다.

다음과 같은 도표로 나타 낼 수 있다.

	与え手	受け手	視点	人称
やる · あげる	주어	목적어	与えて	与えて ≥受けて
くれる	주어	목적어	受けて	与えて <受けて

寺村秀夫는 人称에 대해서 西洋語와 구별되어지는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서술 하고 있다.

「1人称」は、　話し手自身だけでなく、その授受関係において、話し手が自分の側にあるもの、「内側」のものと意識するものはすべて入る、「二人称」「三人称」にとってもこの事は同じだということである。20)

寺村秀夫도 授受動詞의 人称에 관해서는 다른 연구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寺村秀夫(1982)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第Ⅰ巻p.134 くろしお出版

2-2-3.「もらう」「いただく」

「もらう」는「くれる」와 동작의 方向은 같지만, 「受ける」라고 하는 받는 쪽의 입장으로서, 받는 사람이 主語이며, 주는 사람은 타인이고 받는 사람은 話者나 話者 側의 가까운 사람이다.

話者의 표현위치는 항상 主語에 있고, 主語가 2인칭일 경우에는 目的語 자리에 1인칭이 올 수 없다.

주고받는 사람이 모두 타인에 해당될지라도 받는 사람은 話者 쪽의 입장으로 보고, 주는 사람은 外部의 下位者이거나, 同等한 위치의 인물이든 관계없지만,「받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上位者가 된다.

주는 쪽	받는 쪽
同じレベル　：話し手以外 下位者　　：話し手以外	話し手内 誰

한편, 小泉(1993)은 다음의 표를 통해 「もらう」의 人称制約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21)]

「もらう」	移動方向
×君は私から本をもらったね。	×２←１
×三郎は私から本をもらった。	×３←１
×三郎は君から本をもらったかね。	×３←２
○私は三郎から本をもらった。	○１←３
○君は三郎から本をもらったかね。	○２←３
○私は君から本をもらったね。	○１←２
○三郎は秋子から本をもらった。	○３←３ ' 「もらう」
「もらう」１←２←３←３ '	

(注)「←」는 이동방향을 가리키며, 숫자 1,2,3은 각각의 인칭을 의미한다[22)].

21) 小泉 保(1993)『日本語教育のための言語学入門』 大修館書店

22) (注)「←」는 이동방향을 가리키며, 숫자 1,2,3은 각각의 인칭을 의미한다.

「いただく」는 「もらう」의 謙讓語로 주는 사람이 손윗사람일 경우에 使用되며 보통 話者 또는 話者 側에 가까운 사람이 받는 이가 된다. 다시 말하면, 곧, 話者를 낮추고 주는 사람인 상대를 높일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尊敬語는 없고 謙讓表現으로만 使用된다. 또한 所有権의 移動이 포함되어 있다.

本 章에서는 本動詞로서의 물건을 주고받는 受給表現인 「やる」「くれる」「もらう」에 대해서 考察해 보았다.

受給動詞의 「やる」와「くれる」는 話者의 표현 위치가 다르다는 것과 「もらう」와「くれる」는 話者 측에서 바라보는 표현 위치는 동일하지만, 主語의 위치와 目的語 자리의 위치가 다르다고 보고, 이는 話者가 어디에 관여하느냐 따라 수수동사가 달리 쓰이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やる」「くれる」「もらう」의 단순한 사물의 이동에서도 人称상의 제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授受動詞는 方向性이 강한 동사로서 制約에는「주는 사람」과「받는 사람」의 視点에 대한 제약과 人称의 제약이라는 特殊性을 띄고 있으며, 그 제약에 대해서 寺村秀夫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与える人がだれに、受け取る人がだれ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の特殊であり、いわば、人称についての制約が、西洋語におけるような絶対的な性格のものでなく、相対的なものである点に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して、この制約ということから見れば、くれる、くださるも　また、同じ」性質を共有するものであるから、日本語の文法としてはこれらを総合的に記述する必要がある。23)

또한, 말하는 사람 즉 話者나 話者 쪽이 가까운 사람이 中心이 되어 안쪽이라는 화자 측 사람과 밖이라는 타관사람으로 구분지어 문장의 구조로 이루어 있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듯이 日本語에 있어서 日本語만의 特徵으로 自己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傾向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3) 寺村秀夫(1982)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第Ⅰ巻 p.133

또한 受給動詞는 누가 누구에게 사물을 주고받는 단순한 물건의 이동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이익이나 은혜를 포함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以上으로 본동사로서의 수급동사에 대한 考察를 마치고, 補助動詞로서의 受益動詞에 대해 考察해 보기로 한다.

2-3. 受益動詞로서의 授受動詞

앞 章에서 考察한 수수동사가 本動詞로서 쓰일 때에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향한 事物의 수수표현만 나타내지만, 本 章에서 考察할 補助動詞로서의 授受動詞는 行為를 주고받는 受益表現이다. 누가 누구에게 라고 하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行為로서 주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利益이 되는 일이나 行為를 부여하고 받는 사람은 利益이나 恩惠를 받을 때 쓰는 受益表現의 授受動詞이다.
受給動詞의 물건의 주고받음에서 제한되지 않고, 「～何々して」를 붙여, 補助動詞로서의 사용되어지는 수익표현이 있다. 이는「行為のやりもらい」로서, 受益의 感情이 수반된다.
松下大三郎은 恩惠라는 用語를 사용하지 않고「利益供与態」라고 하는 利益의 移動이 자신과 타인을 焦点에 두고, 授受動詞를 나누웠다.[24]
受益表現에는 「てやる、てあげる、てさしあげる、てくれる、てくださる、てもらう、ていただく」가 있다.
다음 項에서 이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2-3-1. 「てやる」「てあげる」「てさしあげる」

「てやる」는 話者 또는 話者 쪽에 가까운 사람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해 준

24) 松下大三郎(1924) [標準日本語文法] 紀元社

다는 의미로 화자 또는 화자 쪽에 가까운 사람에서 상대방에게 행위가 전해짐을 나타낸다.

行為를 전하는 사람을 主語로 하고 그 행위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감사함을 느끼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利益과 恩恵만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불이익을 주는 경우, 자신의 강한 意志를 나타내는 경우도 「てやる」를 통해서 찾아 볼 수 있다.

「てやる」의 方向

<table>
<tr><td>A ⇒ B</td><td>A ⇒ B</td></tr>
<tr><td>与えて ⇒</td><td rowspan="3">受けて</td></tr>
<tr><td>話者 또는 話者 側 ⇒</td></tr>
<tr><td>主体로서의 主語 ⇒</td></tr>
</table>

＜１＞ 利益 또는 恩恵의 경우

１） 太郎は次郎に英語を教えてやった。

２） 私は弟のかばんを持ってあげた。

３） 彼は彼女の荷物を運んであげました。

＜２＞ 不利益을 주는 경우

４） あんなやつ、殺してやるぞ。

５） 僕は花子の犬をけってやった。

６） あいつ、ぶんなぐってやる。

＜３＞강한 意志를 나타내는 경우

７） あんな受験、きっとパースしてやる。

８） いつか有名な人になってやる。

９） 今回の試験には必ず100点をとってやる。

「てあげる」「てさしあげる」는 「てやる」에서 언급했듯이 무언가를 해 준다는 의미로 행위를 하는 동작주가 주어이며, 그 동작으로 다른 사람에게 利益을 줄때 사용된다. 또한 話者나 話者 側을 낮춤으로서 상대방을 높이는 謙讓 표현이다.

１０）私はお祖父さんに新聞を読んであげました。

１１）妹は日本の友達に東大門を案内してあげました。

１２）木村さんに田中さんの電話番号を教えてあげました。

１３）僕はお祖母さんを空港まで送ってさしあげました。

１４）よかったら貸してさしあげましょうか。

예문１０）～１３）과 같이 상대방에게 利益이나 恩恵를 전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동작을 하는 행위의 主体로서 행위를 받는 사람이 감사하게 생각하기를 기대하고 하는 행동이다. 예문１４）와 같이「てさしあげる」를 잘못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利益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지나치게 되어 내세우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용 시에 주의가 필요하며 손윗사람에게 사용하면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2-3-2. 「てくれる」「てくださる」

「てくれる」는 話者 또는 話者 側의 사람이 아닌 相対方이 主語가 되고, 주는 사람으로서 받는 사람, 즉 話者 또는 話者 側에게로 行為를 전달함으로서 利益이나 恩恵를 주는 경우이다. 表에서 알 수 있듯이 話者 側을 中心이 되어 行為를 전하는 補助動詞로서의 表現이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과 同等한 위치에 있는 関係일지라도 받는 이가 話者 쪽에 가까운 사람일 경우에 使用된다.

「てくれる、てくださる」는 상대방의 希望 또는 依頼 등에 의한 行為가 아니고

自発的인 제공으로 「てもらう」와 치환이 가능하지만, 뉘앙스에 差異가 있다.

表) 「てくれる」의 方向

A ⇒ B	A ⇒ B
与え手 行為 主体로서의 主語	受け手 話者 또는 話者 側의 人物

＜１＞ 感謝의 의미로서 쓰인 경우

１） 太郎はうちの子と遊んでくれた。

２） 次郎は私に英語をおしえてくれた。

３） 彼は私の代わりに一生懸命掃除してくれた。

４） 金さんが弟に辞書を買ってくれました。

＜２＞ 희망, 부탁의 의미, 의뢰로서 쓰인 경우[25)]

５） 先生、私の原稿を読んでください。

６） 僕からこの話を聞いたことは、伏せておいてください。

７） この問題、教えてくれませんか。

예문５）, ６）은 話者의 利益이 되는 目的에 의해 듣는 사람에게 負担을 要求하고 있다. 일반적인 命令形은 듣는 이가 윗사람인 경우에 使用되는 경우는 통상 있을 수 없지만,「ください」가 쓰이는 경우라면, ５）의 예문처럼 듣는 이가 윗사람일 경우에도 使用될 수 있다.

＜３＞ 폐를 끼치는 경우

25) 吉井 健 「～してください」の用法 「命令・依頼・勧め」の関係 日本語学論説資料

８） 人の顔に泥を塗ってくれたな。

９） 余計なことしてくれたな。

１０） なんでうそついたの。ほんとうのこと言ってくれたらよかったのに。

＜４＞ 좋은 형편이나 命令, 勧誘의 경우

１１） やっと、春が来てくれたね。

１２） 美術館には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１３） 一日三十品目とは言いませんが、少なくとも二十品目は食べてください。

１４） 遅くなったので今日はうちに泊ってください。

１５） 風よ、吹いてくれ。[26]

예문１１）은 主体에게 좋은 기회나 형편이 주어졌을 때 使用되며, 예문１２）~１４）는 勧誘의 경우로서, 要求되어지는 行為의 実現이 듣는 이에 대해서 利益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遅くなったので今日はうちに泊ってください」이처럼 말하는 측이 物件이나 場所를 제공하고 그것에 의해 듣는 이가 利益을 얻기 때문에 話者의 側에 오히려 負担이 있는 듯하다. 15)의 예문은 命令의 경우로, 無生物을 대상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無生物을 대상으로 비를 人格化해서 자신의 아군으로 생각하는 기운이 강하게 表現되었다.

2-3-3. 「てもらう」「ていただく」

「てもらう」는 받는 사람, 즉 話者 또는 話者 側에 가까운 사람이 主語가 되고, 그 主語는 相対方이라는 行為의 主体로부터 利益이나 恩恵를 받는 구조의 補助動詞로서의 受益表現이다.

이러한 「てもらう」의 쓰임은 話者 또는 話者 側에 가까운 사람이 문장 구조 안에서 希望이나 依頼 또는 自発的인 부탁으로 인해 発生되는 行為에서 話者

26) 吉井 健「～してください」の用法 「命令・依頼・勧め」の関係 日本語学論説資料

側이 느끼는 感情을 엿 볼 수 있다.

1) 私は誕生日のプレゼントでお父さんに自動車を買ってもらいました。

2) 僕は彼女にピアノをひいてもらった。

3) 思いもしなかったのに、次郎は花子にセータを編んでもらった。

예문 3) 과 같이 話者가 要求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런 行為가 이루어져 話者로 하여금 利益 또는 恩恵의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

받는 사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受益者 일 뿐, 꼭 行為의 要求者는 아닌 것이다.

奥津敬一郎,徐昌華는 「てもらう」의 利益, 恩恵表現을 利益的行為의 取得이라고 表現하기도 했다.[27)]

또한, 「てもらう」表現은 利益, 恩恵表現 뿐 만 아니라 行為主体의 行為로 인해 不利益이나 被害를 받는 경우도 存在한다. 이렇듯, 補助動詞로서의 授受表現에는 플러스 적인 利益도 発生하지만, 마이너스 적인 不利益도 表現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てやる、てくれる」表現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1＞상대방에게 依頼해서 好意가 있는 動作을 받는 경우

4) このかばんを向うに移してもらえますか。

5) 友達にむずかしい数学の問題を教えてもらいました。

6) 先輩からお金を貸してもらいました。

＜2＞許可를 구할 때

27)奥津敬一郎,徐昌華(1982)「「～てもらう」とそれに対応する中国語表現-“清”を中心に」「日本語教育」46, 日本語教育学会,P.98

７）君は近い間、医者に診断してもらったほうがいいよ。

８）先生、休ませていただけませんか。

＜３＞不利益이나 被害를 받을 때

９）泥だらけで部屋に入ってもらっチャ迷惑だ。

１０）ここへ置いてもらっては困る。

１１）行きたくないのに、誘ってもらってこまる。

본 章에서는 補助動詞로서 쓰이는 授受動詞「てやる、てあげる、てさしあげる, てくれる、てくださる, てもらう、ていただく」에 대해서 考察 해 봄으로서 日本語에 있어서 補助動詞를 이용한 授受表現은 단순한 事物의 移動이 아닌, 行為의 移動으로 인해 利益이나 不利益을 주고받는 授受表現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松下三大郎은 이 표현을 「利益態」라고 부르고, 文法的 「態」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自行他利態」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행동을 해서 타인에게 利益을 주는 경우를 뜻하고, 「他行自利態」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主体가 되어 自分에게 利益을 주는 경우이며, 「自行自利態」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自分이 行為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もらう」의 주체가 自分인 경우를 의미한다.[28)]

28) 松下三大郎(1924) 『標準日本語文法,』記元社

第 3 章. 「やる・くれる・もらう」의 用法 分析

전 章에서 日本語 授受動詞에 관한 先行研究를 바탕으로 授受動詞를 受給動詞와 受益動詞로 나누어 전반적인 意味와 用法에 대해 考察해 보았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어의 수수동사의 쓰임은 제3자 간의 行為에서 조차도 객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話者 자신과의 관계로 연결시켜 상대와의 행위를 다루고 있는 일본어의 独特한 표현양식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곧 話者가 결부되어 안쪽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사건이 생기고 자신의 일처럼 취급해서 授受動詞를 각각 표현한 것이다.
이번 章에서는 실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授受表現의 用例를 考察해 보고자 실생활에 가장 근접한 자료로 판단되는 일본 드라마를 선택하였다. 드라마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授受動詞 表現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표현의 사용 빈도가 높은지 考察해본다.
드라마에서 授受動詞를 찾고자 한 目的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실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표현을 통해 授受動詞의 談話的 기능을 살펴보고자 함이다.
조사방법은 일본 드라마의 대본을 통해서 수수동사가 사용된 場面의 대사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분석해 보았다. 아울러, 각 드라마별로 수수동사「てやる」、「てくれる」、「てもらう」가 사용된 장면을 분류하고 분석해나가는 방식으로 조사하였고, 드라마에서 발취한 用例는 略語로 표기하기로 한다.

3-1. 「1リットルの涙」에 나타난 授受動詞 表現

(1)「てもらう」

<u>保健室で怪我の手当てをしてもらう亜也</u>。

雨で濡れた体を拭いた遥斗は、

「じゃあ、失礼します。」と言い帰ろうとする。
その時、保健室に教師がやって来た。（涙）

（1）이 장면의 내용을 부연설명 하는 이 문장 「保健室で怪我の手当てをしてもらう亜也。」에서는 亜也가 손을 다쳐 보건실에 와서 치료를 받는 장면이다. 여기서 「てもらう」의 쓰임은 亜也가 손을 다쳐 치료를 목적으로 보건실에 왔기 때문에 이는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익, 은혜 표현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2）「てもらう」

「良かったな！二人にはここで受験してもらうことになったから。」
「いいんですか！？」亜也の表情が輝く。
「ただし、他の受験生との公平を保つ為に、1時間目の終了時間は
　予定通りとするけど、いいね。」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いや、俺は、あの・・・」戸惑う遥斗。（涙）

（2）는 話者(話者 側)가 要求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런 行為가 이루어져있다. 즉, 받는 사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受益者도 行為의 要求者도 아닌 것이다.
즉, 話者에게 직접적인 利益은 아니지만, 함께 기뻐하고 있다.

（3）「てくれる」

亜也の担任、西野良三（佐藤重幸）は英語教師、女子バスケ部の顧問でもあった。
亜也のクラスは、まりだけでなく遥斗とも一緒だった。

入学式に遅刻してきた遥斗は

「途中で女子高生が転んで怪我をして、

　ほっとけなくて病院についていったんです。」と担任に言う。

「お前も毎回大変だな。」

担任の教師は試験の日二人の為に走ってくれた先生だった。

亜也が会釈しても、無視する遥斗。

遥斗の友達が、今の話は本当か？と聞くと「嘘！」と答える。

「変なヤツ。」亜也がそう呟いた。(涙)

（3）는 話者또는 話者 側에게 행위를 전달함으로서 이익이나 은혜를 주는 경우이다. 의뢰로 인한「てくれる」의 쓰임이 아닌 상대방의 호의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てもらう」

そして二人は、さっそく来月に行われる合唱コンクールの準備を命じられる。

指揮者と曲目を決めるよう担任に言われ、亜也は遥斗をちらっと見るが

遥斗は無視。

「えっと、まず、指揮者を決めたいと思います。」仕方なく亜也が言う。

「クラス委員がやればいいと思います。」女子生徒の一人が言う。

「じゃあ、やって。」遥斗が亜也に言う。

「多数決取ります。

　えー、指揮者は、何だっけ？名前。」

「・・・池内です・・・。」

「池内さんに反対の人。」

そう言われて、誰も手を挙げるものはいなかった。

「じゃ、そういうことだから。」

強引に亜也に指揮者を押し付ける遥斗。

亜也は反論しようとするが、遥斗は次に曲目を決めようと話を進める。

「それもクラス委員で決めてもらっていいんじゃない？」女子生徒が言う。

非協力的なクラスメートに戸惑う亜也・・・。(涙)

(4) 는 가까운 사람 사이에 사용되는 정중한 표현으로 의뢰 또는 의향으로서의 「てもらう」의 표현이 사용 되었다.

(5) 「てやる」

夕食時。

家族は亜也がクラス委員に選ばれたと知り誇らしげ。

「でも男子のクラス委員なんか、全然やる気ないの。

あ、あの子。入試の日に自転車乗せてくれた子。」

「あの二人乗り男！？」と瑞生。

「同じクラスになったの？

じゃ、今度連れていらっしゃいよ。」と潮香。

「しょうがねーな。豆腐の一丁でも食わしてやるか。」

「この間はあんなに怒ってたくせに。」と亜湖。

「だってしょうがねーだろう。(涙)

(5) 는 話者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스스로 해준다는 의미로 상대방에게 행위를 전하는 표현이다. 이 문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 준다는 의미만 부여될 뿐 利益이나 好意가 아닌 강한 意志가 나타나 있는 表現이다.

(6) 「てもらう」

「やっぱ変わってる・・・。」と呟く亜也。

そこへ潮香が戻ってきた。

「いい機会だからさ、ちょっと検査してもらおうよ。」

「検査？」

二人は、神経内科の水野宏（藤木直人）の診察を受ける。

「歩く際にふらつきを感じるようになったのは、いつ頃からですか？」

「1ヶ月くらい前だったと思いますけど、

多分それは、睡眠不足のせいだと思います。」（涙）

（6）는 좋은 기회이기에 검사를 받는다. 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일로 화자가 요구하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행위가 이루어져 받는 사람이 수익자가 되는 표현이다. 즉, 수익, 은혜의 용법이다.

（7）「てあげる」

生物部。

「こんなことまで生物部の活動かよ。。」

水槽の魚にエサをやりながら耕平が文句を言う。

「当たり前ですよ。

僕たちが世話をしてあげなくちゃ、彼らは生きられませんから。」（涙）

（7）는 화자 측이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해준다고 하는 수익이나 은혜로서의 「てあげる」의미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의를 베푼 것을 느끼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는 표현이다.

（8）「てもらう」

潮香は亜也にふらつきを抑える薬と説明し、薬を飲ませる。

「おい、薬とか検査って何なんだよ。」瑞生が聞く。

「最近亜也が身体がふらつくことがあるでしょう。

念のために検査してもらったの。」

「で？どうだったんだよ。」

「自律神経のバランスが崩れてるんですって。

思春期にはよくあるんですって。」(涙)

(8)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검사를 받는다는 의미로, 話者의 依頼로 인해 「検査してもらった」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行為者에 의한 要求로 受益表現이다.

(9) 「てくれる」

「人間と犬っていうのは、5万年前から一緒に生きてきたんだって。

人間が狩をして生きてた頃、猛獣が近づくと、

犬が鳴いて、危険を知らせてくれたんだ。

だから、人間は安心して眠ることが出来た。(涙)

(9)는 행위의 主体인 개「犬」가 話者인 쪽으로 恩恵가 影響을 끼치고 있는 표현이다. 이는 話者인 이야기 중심인물을 위해서 행위가 이루어 졌다. 또한 「～が～を～てくれる」라고 하는 感謝, 受益의 의미로 使用되는 경우이다.

(10) 「てくれる」「てもらう」

試合後、先輩の河本と並んで歩く亜也。

「いい試合だったな。きっとレギュラー間違いなしだ。」

「そんなに甘くはないと思いますけど。」

「まだ持っててくれたんだ。」

亜也のリストバンドに気付いた河本が言う。

それは、中学の頃、亜也が河本にサインしてもらったリストバンドだった。

「俺、合格発表で池内見つけたとき、ホント嬉しかったんだよな。」(涙)

(１０)의 「てくれる」는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어줬다는 상대방이 話者에게 무언가를 해 주었다.라는 표현으로 話者는 뜻밖의 状況에 기뻐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てもらう」는 、「亜也」가「河本」에게 받은 것으로 「亜也」가 「河本」에게 부탁이나 依頼로 인해 발생한 利益의 表現이다.

또한, 시점의 차이가 관여한다.

(１１)「てくれる」

その帰り、公園で一人子犬を探す亜也。

パンを上げながら話しかける。

「さっきね、河本先輩がいい試合だったなって、言ってくれたんだよ。

それにね、東高に入ったこと、嬉しいって！」

「良かったじゃん！」突然背後から声がする。(涙)

(１１)는 行為의 主体가 받는 사람인 話者에게 行為를 전달함으로서 話者에게 利益이나 恩恵를 주는 표현이 나타나 있다.

(１２)「てくれる」

「お父さん！亜也姉が男連れてきた！」亜湖の言葉にひきつる瑞生。

「亜也姉の彼氏？」

「違うわよ。」

「はじめまして。麻生です。」

「あ・・そう。亜也の、父です。」瑞生が思いっきり睨む。

「怖いんだけど・・・」亜也に助けを求める遥斗。

「ほら、入試の日に助けてくれた子。」

「あ、お前があの二人乗りの男か！」ますます睨む瑞生。

「えぇ！？」(涙)

(中略)

（１３）「てくれる」

桃花の父親の病室に入る亜也。

「お父さん、このお姉ちゃんが手伝ってくれたんだよ。」

ベッドに横たわる桃花の父・明彦の姿に驚く亜也。

主治医、水野宏、とある。

桃花の父親は、文字盤を使い、震える指で、

「あ・り・か・と・う」と礼を言った。(涙)

（１２）（１３）는 상대방의 自発的인 호의로 인해 話者에게 利益이나 恩恵를 가져오게 됐다는 表現이다.

（１４）「てくれる」

「お母さん私の心の中にいつも　私を信じてくれているお母さんがいる。

こ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涙)

（１４）는　話者는 상대방의 호의로 感謝의 마음을 정중하게 표현한 것으로 話者에게 利益 또는 恩恵를 받았다는 뉘앙스가 나타나 있다.

3-2. 「やまとなでしこ」에 나타난 授受動詞 表現

（１５）佐久間　気をつけろ、軽々しく電話してくるようなスッチーに引っかかったらとんでもないことになるぞ。はい、もしもし･･･え、若葉ちゃん？電話待ってたんだよ。もう一回合コン？同じメンバーで？いいねえ。

若葉　　あのーそれで中原欧介先生にも声かけていただけますか？できたら･･･いえ、絶対に誘ってほしいんです。

佐久間　OK、任せなさい。(やまと)

（１５）「先生にも声かけていただけますか」의 부분에서 상대의 동작을 감사히 받는 다는 기분을 나타내는 겸양어로서 「てもらう」가 사용되었다. 또한 손윗사람이거나 동등한 입장이라도 친분관계가 다소 친하지 않을 때 하는 표현으로 경의를 나타내는 의미로「ていただく」가 사용되었다.

（１６）「てやる」

佐久間　じゃ、当直行ってくるよ。

真理子　デートでしょう。

佐久間　え？

真理子　欧介君、今日二度目のデートだよね。

佐久間　ああ、大丈夫だよ。ちゃんと例の店も教えてやったし。

真理子　でもさあ、代官山のペルシェルって予約とりにくいんだよね。

佐久間　あ、店間違えちゃった。(やまと)

（１６）는 話者가 상대방에게 부탁을 받고 하는 행위가 아니고 스스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거나 利益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나타난 場面으로 쓰였다.

3-3. 「ロングバケーション」에 나타난 授受動詞 表現

（１７）「てくれる」

瀬　名: どうしたの、そのかっこう。

南　: 面接、一個会ってくれるとこあったから。私もそろそろ職に就かないと。眠れなかったんでしょう？

瀬　名: そうやって、人のこと見透かしたような言い方しないでくれる。なんであの人があんなとこに寝てるの？

南　: だって、はじっこが落ち着くんだって。真二に電話して迎えに来させよう。

瀬　名: 寝かしといたほうがいいって。

南　: なんで？

瀬　名: 明け方になってようやく寝たみたいだし。

南　: 来たのが3時しぎだからね。ね、真二と涼子ちゃん、本当に何もないと思うよ。

瀬　名: 面接、面接遅れるよ 。(ロング)

（１７）는 話者가 相対方에게 依頼 하는 경우에 쓰는 意味로서 視点이 받는 사람 쪽에 두고 表現 한 것이다. 또한 「てくれる」는 동사원형 그대로 사용한 회화체로서 疑問文의 形態로 나타냈다. 또한 이는 상대방에게 依頼하는 표현이면서 命令的인 語調로 보이는 강한 부탁이 表現되어 있다.

（１８）「てもらう」

ルミ子: 私、やっぱり帰ります。

瀬　名: もうすぐ帰って、ほら。真二君。

南　: ね、うち、でっかい懐中電灯あったよね。あ、るーさん。いらっしゃい。なんで？

瀬　名: ちゃんと話したほうがいいな！と思ってさ。で、るーちゃんにうちに来てもらった。真二君、まだなんだけど。

南　: この度はうちの弟がどうも。

真　二: ただ今！た、ろ、よ、なんちゃって、ちょっとちょっと。パチンコ勝っちゃってさ。

ルミ子: お帰りなさい。(ロング)

（１８）는「るーちゃんにうちに来てもらった。」의 표현은 받는 쪽이 주어인 「私」 가 생략이 생략된 것으로 상대방이 와 주어서 기쁘다는 감사의 의미가 내포 되어있다.

（１９）「てもらう」

杉　崎: でも明日までに入庫だから、今日は徹夜でキャプション考えなきゃ。

南　: 本当にご迷惑おかけしました。

杉　崎: 手伝ってもらえる？

南　: 私でいいんですか？

杉　崎: もちろん。

南　: 頑張ります。(ロング)

（１９）는 話者가 行為의 주체자인 상대방에게 의뢰나 자발적인 부탁으로 발생되는 표현으로 또한 이 장면에서는 상대방의 의향을 묻는 표현으로도 쓰이고 있다.

（２０）「てあげる」

南　: もう、なかったりして。

瀬　名: あった。

南　: ラッキ。

瀬　名: 荷物全部運んじゃったんだね。

南　: うん。

瀬　名: 言ってくれればちょっと手伝ってあげたのに。

南　: また、心にもないこと。(ロング)

(２０) 는 상대방이 話者에게 依頼나 부탁을 해 왔다면 話者는 상대방의 依頼를 기꺼이 받아 상대방에게 動作을 취해 利益을 부여하려고 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２１) 「てくれる」

瀬　名: なんで？なんでこんなことするの？

南　: 奇跡はないって言ってたよね。でも私はあると思うよ、絶対。私ピアノ小さいころ全然ダメでゼロ以下だったけど。一週間でここまできたもん。奇跡だ。こういうのは奇跡って言わないか。私ここ来たころ、朝倉いなくなってすぐのあのころ、この曲、瀬名君が弾いてくれたこの曲が、私を救ってくれたからどうしても弾けるようになりたかったから。ピアノやめちゃダメだよ。絶対捨てちゃダメだよ。瀬名君に捨てられたらこのピアノどうするんだよ、悲しがるよ。(ロング)

(２１) 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話者에게 베푼 호의로 인해 話者는 感謝함을 「てくれる」로서 정중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てくれる」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사람 ,具体的인 사물의 명사 뿐 만아니라, 抽象的인 명사 連絡등이 쓰일 수 있다.

3-4. 「東京ラブストーリー」에 나타난 授受動詞 表現

（２２）「てくれ」

リカ ： ウチの営業，キツイよ。

和賀 ： 来たか。

かんじ ： あ，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わが：お袋さんからミカン届いたよ.お禮言っといてくれ。

かんじ：はい。（東京）

(中略)

（２２）는 귤을 보내준 사람에게 호의를 받고，話者는 感謝하다는 표현을 전해달라고 하는 의뢰의 표현으로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인물에게 부탁하는 「てくれ」가 쓰이고 있다.

（２３）「てくれる」

みかみ：あ，確か同じジュラスだったよな?

生体学ノート貸してくれないか?

女学生：---

(初めから本体巻いたまま過ぎ去ってしまう)

みかみ：---　（東京）

（２３）는 「てくれる」의 상대방에게 依頼를 하는 부탁의 의미로 표현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자신의 기대나 희망을 가지고 의뢰를 구하는데 정중한 표현으로 부정의문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호의를 구하는 표현이다.

（２４）「てくれ」

みかみ：何か用か?

さとみ: そんな特別,用って言うんじゃないんだけど、私ね。永尾くんに付き合ってくれって言われてるんだ。

みかみ: そうか。

さとみ: すごい嬉しかった。でもなんか迷ってる。(東京)

(２４) は 話者は 상대방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듣고「永尾くんに付き合ってくれって言われてるんだ。」라는 표현에서 「てくれ」는 듣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依頼를 표현한 것으로 「てくれる？」「てくれない？」보다 강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표현이다.

(２５) 「てやる」

急にサトミは泣き始めた. さとみの態度に驚いたみかみ。

さとみ: 三上くん。

みかみ:どした?

(ずっとべそをかきながら、、)

さとみ: 永尾くんにフラれちゃった。

みかみ: --- (みかみは懐で手ぬぐいを取り出してサトミに渡した。)

みかみ: あ-------汚れてないから。

みかみ: 泣くなって、あいつ、ちゃんとおまえのことが好きだから。

さとみ: -----

みかみ: たださ、あいつ、誤解してんだよ。

俺とおまえが何かあるじゃないかって。

さとみ: ---

みかみ: 俺から話してやる--だから、そんなさ、泣くなってば。(東京)

(２５) は 이 場面에서 話者는 상대방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스스로 자청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며 울지 말라고 타이르고 있다. 이는 話者의

자발적인 動作과 함께 상대방을 위해서 해준다는 話者의 의지와 수익의 의미에서 「てやる」가 쓰이고 있다.

（２６）「てもらう」「てやる」

リカ: カンチは?

かんじ: 俺は昼休みだから、だいたい何で二人が、

さとみ: あ，私が相談乗ってもらってたの。

かんじ: 相談?

リカ: さてと、 二人っきりにしてあげよっかな。

リカはかんじの手をあげてからバトンタッチするように殴って後ろ向きになった。

(中略)

リカ: 相談にのったげる。

かんじ: あなたに相談するくらいなら、コックリさんに相談します。

リカ: 何よ，人がせっかく慰めてやってんのに、、

かんじ: あぁ、 そうですか、、(東京)

（２６）에서 「てもらう」의 쓰임은 받는 사람이 主語이며 話者에게 視点이 맞춰 있으며, 話者가 상대방에게 직접 부탁을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好意, 利益을 받았다는 표현이다.「てやる」의 쓰임은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話者가 직접 상대방을 위해서 스스로 호의를 베풀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로서 표현되었다.

3-5. 「のだめカンタービレ」에 나타난 授受動詞 表現

（２７）「てくれる」

『変態ピアニストVS俺様指揮者のラプソディ』

千秋が落とした"たまごっち"をきっかけに、親しくなる二人。

「それがきっかけで、ヴィエラ先生に気に入られ、

まだ子供の俺にも、先生はいろんなことを教えてくれた。

そして、父と離婚した母と共に、

日本に帰ることになった俺は・・・」(のだめ)

(27)는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主体가 상대방이고 , 그 동작이나 행위를 받는 話者는 상대가 행동을 해서 자신에게 利益을 부여했다는 「他行自利」의 구조이며, 이 場面에서 아직 어리고 부족한 「私」에게 「先生」은 제자에게 여러 도움과 이익을 부여했다. 여기서「てくれる」는 드라마 상에서 회화체로 쓰였는데, 주는 사람이 손윗사람 일 경우이고 받는 사람이 손아랫사람 일 경우에 「てくださる」가 사용된다.

(28) 「てやる」「てもらう」

あっという間に料理を作る千秋。

「美味しーい！すごーい！お母さんより上手い！天才です！！」

「そこまで・・・」

「のだめ、感動です！」

「今度はもっと美味いの作ってやるよ。」

(中略)

「すごーい！先輩のピアノって正確なんですね。本当に楽譜とおりでしたよ！」

「お前がデタラメ過ぎるんだよ。俺とやる以上はきっちり弾いてもらうからな。」

「いー・・・。」(のだめ)

(28)의 「てやる」는 話者가 자신의 강한 意志를 표한 것으로 타의적이지 않고 자발적인 표현으로 자신 스스로에게 강한 다짐의 의미가 나타나 있다.

이 장면에서「てもらう」의 의미는 「俺」에게 배우게 된 이상 피아노를 정확하게 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話者의 의지가 「きっちり」로 인해 더욱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２９）「てやる」

「先輩、素敵素敵！」

「ジュニアなら俺もウィーンのコンクールで優勝したことが

あるんでな。少しなら教えてやってもいいけど。」

「・・・お前に、教わることなんかねー！」

竜太郎も飛び出していった。(のだめ)

（２９）는 話者가 動作主가 되어 상대방에게 어떠한 行為를 함으로서 상대방에게 利益 또는 恩恵를 건네준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면서 자신이 상대방을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는 표현도 내포하고 있다.

（３０）「てくれる」

練習会場。

「え！？演奏全部変える！？」千秋の言葉にメンバーが驚く。

「悪いけど、今までのは全部忘れてくれ。」

「いや忘れるって！公演明日なんだぞ！」と竜太郎。

「だから、今日一日でやり直す。」

「そんな、、やっとまとまってきたのに。」

「ごめん。俺のせいで振り回して。でももっと良くなるから。」(のだめ)

（３０）는 이제까지 연주 멤버를 바꾼다는 소리를 듣고 연주 단원들이 놀라고 있는 장면이다. 이는 상대방에게 지금까지의 일들을 전부 잊어달라는 勧誘의 意味로서 「てくれる」가 表現되고 있다.

（３１）「てもらう」「てくれる」

大学構内。

千秋がのだめに楽譜を渡す。

「ほら。今日からちゃんとコンチェルトの勉強してもらうぞ。」

「コンチェルトはもうやりましたよ。」

「え？」

(中略)

「俺がのだめを思うように、

みんなが俺のことを考えてくれているのなら、

それはありがたく、光栄なことかもしれない・・・。」(のだめ)

（３１）의 「てもらう」부분은 主語인 動作主가 생략되어 있는 話者가 학생들에게 공부라고 하는 행위를 하도록 要求하여 実現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즉, 강제적 사역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てくれる」는 話者가 「みんな」라고 하는 상대에게 依頼하는 장면으로 「みんな」에게 「俺」라고 하는 자신을 생각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점이 받는 쪽인 話者에 두고 표현한 경우이다.

（３２）「てくれ」「てもらう」

練習後、千秋たちは、裏軒に集まる。

「おい千秋!早く次の曲決めてくれよ！

もちろん俺も参加できる曲で！」と竜太郎。

(中略)

清良のヴァイオリンに聞き入り、そして落ち込む竜太郎。

「すげー・・・。」

どうしたらそんな音が出るんだ！？

俺を弟子にしてくれ！」

「は？」

「俺に個人レッスンしてくれ！時間があるときでいいから！」

(中略)

「とくにこのマラドーナ・ピアノコンクールは、賞金がなんと200万円も出るんです！

しかも一位になると留学の援助もしてもらえるんですよ！」

「まさかお前、それが目的で・・・」(のだめ)

（３２）의 「てくれ」는 聞き手에게 명령의 어조로 말하는 장면으로, 직접적으로 듣는 이에게 강하게 依頼하는 경우에 쓰이며, 친한 동료사이거나 흔히 男性 사이에서 사용되는 표현이고, 「てもらう」는 1위를 하게 되면 유학의 원조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대회의 주최 측이라고 하는 주최를 하는 측과 받는 측이 존재하며, 다시 말해, 대회를 주최하는 주최측의 행위로 인해, 내가 그 주최 측의 공약을 받는 다고 하는 의미가 된다. 「てもらう」를 사용함으로서, 상대로부터 利益을 얻게 된다. 이는 話者의 자주적 작용으로 인한 収益性을 띄고 있다.

以上, 日本 드라마를 통해서 実生活에 사용되고 있는 授受動詞「てやる」「てくれる」「てもらう」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てやる」가 사용되어진 드라마 속 대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補助動詞로서의 受益動詞는 행위의 主体가 타인이 아닌 스스로가 行為의 主体가 되어 자주적으로 타인에게 동작을 행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文語体에서는 정확한 문장 구조로서 이루어져 있지만, 会話体에서는 그 상황에 맞고, 그 상황 속에 설정된 人間関係에 의해 문장 속의 조사나 주어 부분이 빈번히 생략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てくれる」는 드라마 속에서 사용 빈도수가 높았으며, 명령이나 허가의 용례

보다는 依頼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てもらう」는 받는 사람이 主語가 되고 그 主語는 곧 話者로서 생략되는 현상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아울러,「てくれる」의 용례처럼 상대방에게 依頼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자주 쓰이며, 상대방에게 예를 갖춰 정중한 표현으로 쓰인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第 4 章. 結　論

本 論文에서는 한국인 日本語 学習者들이 習得에 어려움을 겪는 표현 중의 하나인 日本語 授受表現에 관해서 用例 分析을 통해 그 用法을 분석 고찰하였다. 아울러, 先行研究를 바탕으로 보다 実質的인 내용 분석을 위해 일본 드라마 몇 편을 분석하여 이들 작품에서 쓰이는 授受表現의 用法을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授受動詞「やる、くれる、もらう」의 人称序列 関係에서「やる」와「もらう」는 行為主体가 상대보다 位相이 높았고,「くれる」는 상대가 話者보다 人称의 位相이 높다. 또한 発話의 위치가 어딘가 하는 話者의 視点에 따라 수수동사의 형태가 달라진다.

이때, 人称의 제약과 話者의 視点에 影響을 받는다.

「やる」는 「주는 사람」이「받는 사람」보다 人称序列이 높거나 같을 때 사용한다. 이 경우,「주는 사람」이 主語가 되며 시점 또한 「주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

부연하면, 主語의 人称에 따라 目的語가 制約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くれる」도 「やる」와 마찬가지로 「주는 사람」을 主語로 취하지만, 主語에 1인칭이 올수 없으며, 타인이 話者에게 수여할 때 쓰이며, 視点에 있어서 「주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에게 시점이 맞춰져 있다.

人称序列에 있어서 「주는 사람」이「받는 사람」보다 인칭 서열이 낮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단, 「주는 사람」과「받는 사람」이 인칭서열이 같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話者 측의 인물일 경우에는「くれる」를 사용한다.

「もらう」는 「받는 사람」이 主語에 오는 受給動詞로서 「주는 사람」이 타인이고 「받는 사람」이 話者 또는 話者 側의 인물이다. 이때 「받는 사람」에게 시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話者가 항상「받는 사람」쪽에 놓여 진다는 것이다.

또한「주는 사람」은 1인칭이 올 수 없고,「くれる」와 같이 인칭의 제약을 받는다.

受益動詞로서 「てやる」「てくれる」「てもらう」는 수급동사와 마찬가지로 人称과 話者의 視点에 제약을 받고, 물건을 주고받는 수급동사와는 달리 행위를 전달하거나 받을 때 사용되며 이때 제공한 행위로 의해 利益이나 不利益이 발생된다. 이는 곧 方向性에 影響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てやる」는 主語로 표현되는 発話主体인 話者가 상대를 위해서 행하는 것으로 상대에게 恩恵를 미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不利益을 주거나 자신의 강한 意志를 드러내기도 한다.

「てくれる」는 談話상대방이 主語가 되어 行為제공자로서, 받는 사람인 話者에게 행위를 부여하는데 「てやる」와 마찬가지로 利益을 주기도 하지만 不利益을 주기도 하며, 보통 희망이나 요청의 依頼표현이 주로 사용된다.

「てもらう」는 話者가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행위를 부여 받을 때 쓰는 표현으로, 「받는 사람」이 主語가 된다. 「てもらう」는 타인에게 依頼하여 好意적인 동작을 받을 때도 있고, 허가를 구하거나 상대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도 사용한다.

이와 같은 補助動詞로 쓰이는「てやる」「てくれる」「てもらう」의 용법은 利益이 되는 경우에도 쓰이지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쓰인다.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日本語 授受動詞는 話者가 자기주변에 제반행위나 물건의 수수관계를 話者의 시각에서 파악하려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서 韓国人 日本語 学習者들에게는 난해하게 인식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日本語의 授受表現은 話者의 심리적인 면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日本語 授受動詞 用法을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하게 할 수 있는 방편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 드라마를 통한 실생활에서 쓰이는 授受動詞 用法을 考察해 보았다.

드라마에서 쓰이는 수수동사는 場面과 状況, 인물의 性格에 따라서 활용빈도가 달랐다.

「てやる」는 보통 男性語에 자주 쓰였고, 女性語에서는 사용빈도가 매우 낮았다. 아울러,「てやる」는 話者의 意志가 강하게 드러나 있는 표현이 많았다.
「てくれる」는 자신의 바람이나 소망을 기원하는 뉘앙스로써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 依頼하는 경우가 많았다.
「てもらう」는 일반적으로 話者가 상대방에게 직접 부탁을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好意, 利益을 받는 정중한 依頼표현과 話者가 타인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여 자신의 뜻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에서 자주 쓰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参考文献

益岡 隆志, · 田窪 行則(1992) 『基礎日本語文法改訂版』

森田良行(1995) 『日本語の視点「言葉を創る日本人の発想」』創拓社

高橋太郎(2002) 『日本語の活用』 日本語教育113

宮地裕(1965)「やる · くれる · もらう」を述語とする文の構造について」国語学63, 国語学会編

金田一春彦(1955)『世界言語概説』[日本語の補助動詞の項]

鈴木重幸(1972) 『日本語文法 · 形態論』 むぎ書房

松下大三郎,(1974) 『改編標準日本語文法,』 紀元社

森田良行(1988) 『日本語を磨く小辞典<動詞編>』講談社

森田良行(1977)『基礎日本語Ⅰ』角用書店

久野 暲(1978)『談話の文法』. 大修館書店

奥津敬一朗(1986) 『やりもらい動詞』国文学解釈の鑑賞51号 至文堂

庵 功雄(2001) 『 新しい日本語学入門』 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寺村秀夫(1982)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第Ⅰ巻

小泉 保(1993)『日本語教育のための言語学入門』 大修館書店

松下大三郎(1924) 『標準 日本語文法』 紀元社

加藤彰彦 · 佐治圭三 · 森田良行(1990) 『日本語概説』楼楓社

학술지

宮地裕(1965)「やる · くれる · もらう」を述語とする文の構造について」国語学63,
国語学会編

宮地裕(1965), 「言葉の研究 」(第2集) 『敬語理解』,秀英出版

豊田豊子(1974) 『補助動詞「やる · くれる · もらう」について』国語学63, 国語学会編

吉井 健 「～してください」の用法 「命令・依頼・勧め」の関係 日本語学論説資料
奥津敬一郎,徐昌華(1982)『「～てもらう」とそれに対応する中国語表現-“清”を中心に』「日本語教育」46,
日本語教育学会
金珉秀(2000) 「もらう」と「得る」の意味分析 日本語学論説資料 論説資料保存会

江副美知子 外 2人(1998) 「やりもらい動詞にみる文法と発話の関係」
日本語学論説資料 論説資料保存会

高橋太郎(2002)「日本語の活用」日本語教育113号
엄홍경(1997) 한일 양국어의 수수표현과 시점 韓日問題研究所 第5輯
김혜림(1999) 授受表現에 관한 考察 人文学科論集 第19輯

論文

宋正植(1999) 授受動詞의 人称制約과 待遇関係에 관한 考察
韓国外国語大学校 大学院, 碩士学位論文
金永嘆(2000) 日本語教育에 있어 授受動詞에 관한 誤用考察
檀国大学校教育大学院, 碩士学位論文
沈玄姫(2000) 日本語の授受表現における誤用にかんする一考察
中央大学校大学院 日語日文学科 日語学専攻, 碩士学位論文
林美淑(2000) 日本語の授受表現の中間言語 関한 研究
朝鮮大学校教育大学院 碩士学位論文
金宣希(2002) 「てもらう」표현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연구
東亜大学校大学院, 碩士学位論文
孫珉英(2004) 日本語의 授受動詞에 関한 研究
朝鮮大学校教育大学院 碩士学位論文

金明姬(2005)　日本語授受動詞의 用法에 関한 研究
朝鮮大学校教育大学院 碩士学位論文
李孝貞(2005)　授受動詞에 관한 一考察
中央大学校大学院 碩士学位論文

用例出典

日本 드라마

「１リットルの涙」(2005放映)（涙）

「やまとなでしこ」(2000放映)（やまと）

「ロングバケーション」(1996放映)（ロング）

「東京ラブストーリー」(1992放映)（東京）

「のだめカンタービレ」(2006放映)（のだめ）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日語教育	학 번	20048158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박 영 한문: 朴 英 영문: Park Young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우성2차아파트 201동811호				
연락처	(062)373-8774, (011)9611-8774 E-MAIL: happyberry7071@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日本語 授受動詞에 關한 硏究 -やる・くれる・もらう의 用法을 中心으로- 영문 : Investigation concerning the Japanese verbs "Giving" and "Receiving" -To focus on usage concerning "yaru","kureru", and"morau"-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7 년 8 월 일

저작자 : 박 영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